대학 캠퍼스 성범죄 주의보

광주 북부경찰, 대학생 2명 입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학 캠퍼스 내에 성범죄주의보가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은 4일 광주 K학교 경비실 앞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로 C대학교 3학년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0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K대학교 경비실 앞에서 Y(15)양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인근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유양이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으나, 이곳을 지나던 학생의 도움으로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부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C대학교 2학년 강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군은 이날 새벽 0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C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대학원생 L(여·25)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뒤 인근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지나가던 대학생들에게 붙잡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김치 항암효과 소금따라 차이

죽염 〉 군소금 〉 한주소금 順

김치의 항암 효과는 김치와 소금의 종류, 부재료의 양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김치연구소' 길정하 박사는 최근 순천대에서 열린 '김치 효능, 어디에 좋은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길 박사는 "소금 종류에 따른 항암효과 분석 결과 죽염으로 제조한 김치의 항 돌연변이 및 항암효과가 가장 높았고 군소금, 한주소금(정제염)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배추보다는 유기농 배추가 항 돌연변이 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기농 배추에 비타민이나 클로로필 등의 물질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길 박사는 "김치에 마늘량을 2배로 늘렸을 때 암 예방 효능이 높았고, 고춧가루와 마늘량을 함께 늘렸을 때 그 효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에서 김치가 변비 및 대장암 예방, 체중 감량 효과, 피부노화 억제, 바이러스 감염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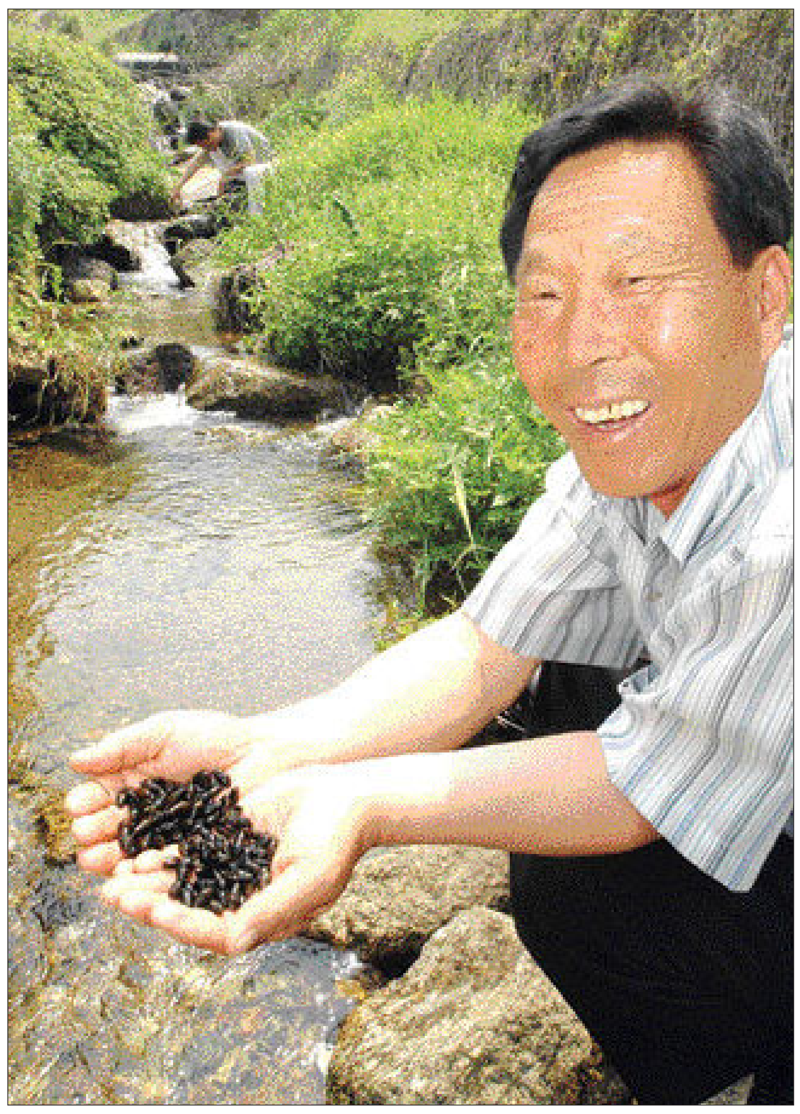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오늘 환경의 날…'주암호 오염원' 순천 한동마을 이주 6년

'한동천' 1급수 복원 다슬기 돌아왔다

환경관리 성과 친환경 녹지 탈바꿈

BOD 27.7ppm→1.0ppm으로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옛 한동마을 입구에 있는 '한동천'. 마을 이장 김상채씨가 한때 사라졌다가 환경 복원 후 다시 돌아온 다슬기를 손에 가득 보여주며 활짝 웃고 있다. /순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250만 명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오염원이었던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한동마을'이 주민 이주 이후 친환경 녹지로 탈바꿈했다.

한동마을은 지난 1976년부터 71세대 193명의 음성나환자들이 모여 살면서 돼지와 닭 등 12만2천여 마리의 가축을 길러 생활을 꾸려왔던 정착촌. 주암호 상류 10km 지점에 위치한 이 마을은 주암호가 지난 1993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주민들이 마구 버린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지류인 '한동천'으로 유입돼 외서천~송광천을 타고 주암호 상류로 흘러들어 물을 크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47억원을 들여 지난 1998년부터 2년여에 걸쳐 마을사람들을 이주시켰다. 마을사람들은 나환자들의 집단 거주를 꺼리는 일반인들을 피해 순천·영암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콘크리트 등 모두 퍼내

그로부터 6년,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5일 '제11회 환경의 날'을 앞두고 지난 1일 한동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천' 맑은 물속의 돌 틈엔 거무튀튀한 것이 보였다. 1~2급수의 깨끗한 물에서 사는 다슬기였다.

마을 이장인 김상채(69)씨는 "예전에 비가 많이 올 때면 닭·돼지 배설물이 하천으로 들어와 물에 둥둥 떠다녔어요. 바람이 세차게 내리 불면 마을 전체가 오물 냄새로 가득 찼죠. 그런데 3년 전부터 다슬기가 살기 시작할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습니다"고 말했다.

한동마을의 정화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컸다. 순천시는 주민 이주가 끝나자 우선 오염원을 철저히 없애는 등 관리에 나섰다. 가축들의 배설물과 생활 폐수 찌꺼기를 긁어내 트럭으로 옮겨 처리했다. 축사나 집 등을 허문 뒤 나온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도 땅에 묻지 않고 전부 퍼냈다.

나무 1만여 그루 심어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단감나무·밤나무·초피나무·매실나무 등 4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었다. 2년 전부터는 '농촌지도자 순천시 연합회'(이하 농순연)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 '농순연'은 지난해 밤나무 2천400그루를 심었으며, 지금까지 심은 나무 수만도 1만 그루가 넘는다. 인근 논밭에 뿌리는 농약도 친환경 농자재인 발효퇴비(EM 퇴비)를 이용했다.

환경복원의 나머지 몫은 자연에 맡겨졌다. 자연의 정화력은 대단했다. 지난 1999년 3월 27.7ppm에 달했던 '한동천'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1년 뒤 6.3ppm으로 21.4ppm이나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1.0ppm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수원수 1급'에 해당하는 물로, 가장 맑고 깨끗하며 냄새가 나지 않아 그냥 마실 수 있다.

30년이 넘게 화전리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 선형모(51)씨는 "과거에는 오물 때문에 벼가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젠 건강하게 자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순천=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통 3사 "야설 서비스 중단"

청소년 38% 성인명의 휴대전화…7% 성인물 접속

청소년 보호 매달 확인키로

정부·시민단체·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의 건전한 휴대전화 이용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 했다. 특히 이통 3사는 최근 문제가 된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를 조속히 중지하고, 청소년 보호 여부를 매월 확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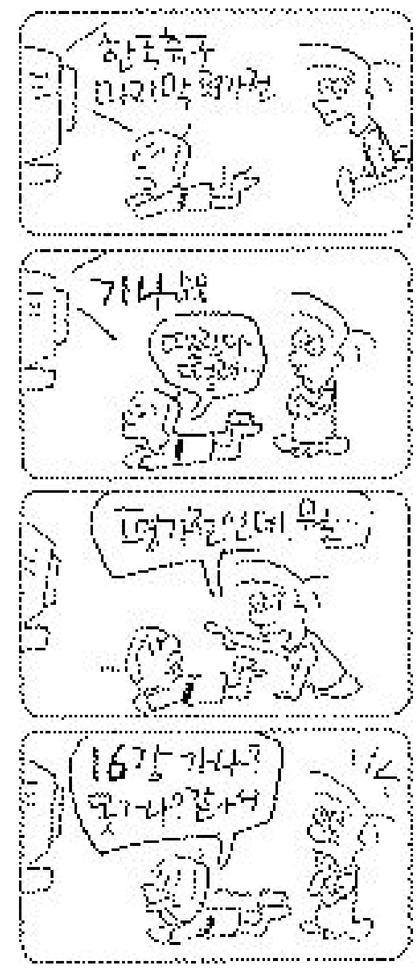
정보통신부는 노준형 장관,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조영주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주혜경 학부모정보감시단장, 강은성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간담회에서 현재 청소년 이용자 480만명 중 약 38.3%(약 184만명)가 부모 등 성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중이고, 무선인터넷 이용 청소년 중 6.5%가 성인물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SKT·KTF·LGT 등 이동통신 3사 사장들은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동전화 가입 시 성인물 이용 여부를 필수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윗참 김종두 〈6846〉



갓난 아들 살해·1년여 방치

서울 광진경찰은 생후 50일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1년여 동안 장롱에 보관한 김모(26)씨와 부인 박모(23)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문화연대 등 '反 월드컵' 게릴라 작전

쌍나팔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 100여명은 4일 "월드컵 열풍과 상업주의가 결합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덮어버리고 있다"며 "반(反)월드컵 게릴라 작전을 벌이겠다"고 천명.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없나요', '월드컵 보러 집 나간 정치적 이성을 찾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로 5㎝ x 세로 7.5㎝) 1만2천장을 제작.

○…이들은 "2006년 독일월드컵은 시민의 순수한 참여가 주축이 됐던 2002년과 달리 자본이 개입되고 언론의 띄우기 경쟁에다, 정치적 이용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 /연합뉴스